**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곤충류**

기쿠치 계곡은 다양한 식물과 풍부한 수원 덕택에 다양한 곤충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다. 계곡에는 1000종이 넘는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곤충은 다음과 같다.

**산푸른부전나비**(Celastrina sugitanii)는 봄에 계곡의 벚꽃이 필 무렵에 우화한다. 날개 윗면은 남색, 뒷면은 회백색에 작은 검은 점들이 있다. 수명이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, 3월부터 5월에 걸쳐 강변의 웅덩이에서 눈에 잘 띈다.

산푸른부전나비의 철이 끝나고 빈도리(Deutzia crenata)의 흰 꽃이 피면 **울릉범부전나비**(Rapala arata) 등의 나비가 모인다. 날개 윗면은 짙은 푸른색, 뒷면은 흰색과 갈색의 줄무늬가 있고 부분적으로 주황색에 검은 점이 있다. 그 외에는 짙은 갈색의 날개에 흰 띠가 있는 **줄나비**(Limenitis camilla), 주황색과 검은색의 **거꾸로여덟팔나비**(Araschnia burejana) 등이 있다.

4월부터 7월 무렵에는 기쿠치가와 강의 급류에 몇몇 종류의 잠자리가 날아와 작은 수생 곤충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몸길이 5센티미터 정도의 **담색물잠자리**(Mnais pruinosa)는 에메랄드 그린색의 몸에 선명한 주황색부터 아주 약하게 회색을 띠는 투명한 색까지 다양한 색의 날개를 갖고 있으며, **니혼카와톤보**(Mnais costalis) 잠자리는 메탈릭 블루색의 몸체에 약간 어두운 주황색 날개를 갖고 있다.

6월은 **히메보타루**(Luciola parvula)의 계절이다. 낮에는 거의 볼 수 없으나, 해가 저문 뒤부터 심야까지 선명한 노란색 빛을 내뿜는 작은 개똥벌레다.

여름이 끝날 무렵 웅덩이나 작은 강변의 연못을 눈여겨보면, 날개를 펼치면 12센티미터 정도의 큰 나비인 **산제비나비**(Papilio maackii)를 만날 수도 있다. 날개 윗면은 검고, 파란색과 녹색의 비늘가루로 덮여 있다. **제비나비**(Papilio dehaanii)는 색이 산제비나비와 비슷하지만, 약간 작고 앞날개와 뒷날개 사이의 틈이 산제비나비만큼 뚜렷하지 않다.